전원생활

질 좋은 황토와 편백나무로 지은 '웰빙 하우스'

■ 담양 금성면 류동옥·신영숙 부부 황토집

류동옥(54)·신영숙(50)씨 부부는 지난 2004년 초 담양군 금성면 원율리(금성지구 문화마을)에 황토집을 지어 보금자리를 옮겼다.

애초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던 류씨는 96년 샐러리맨 생활을 접고 귀농해 화순 동면에서 돼지 1천800여 마리를 키웠다. 그러다 2003년 언론매체에 등장하기 시작한 '웰빙'(참살이) 개념을 접하고나서 과감히 가축들을 처분하고 황토벽돌 사업에 뛰어들었다.

차츰 황토집에 대한 안목이 넓어지고 노하우가 쌓이자 '황토피아'를 설립해 본격적으로 황토집 건축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남지역에 지은 황토집은 40여 채.

부지 560㎡(170평)· 건평 109㎡(33평) 규모의 원율리 황토집은 사업초기 '제대로 된 웰빙공간을 만들기 위해' 살림집이자 모델 하우스로 지은 것이다. 부지 구입은 평당 23만5천원, 평당 건축비는 200만원정도 들었다.

단열을 고려해 황토벽 두께를 35㎝로 두텁게 했고, 천장과 기와지붕사이에 황토층과 빈 공간을 둔 3중 구조로 만들었다. 천장은 편백나무로 마감했다. 편백에서 품어져 나오는 '피톤치드(phytoncide)' 성분으로 인해 집안으로 들어온 모기 등 벌레가 힘을 쓸 수가 없다.

널찍한 거실을 중앙에 두고 방 3개와 다용도실을 배치했다. 거실벽에는 류씨가 직접 붓으로 쓴 '그저 웃지요'라고 글귀가 걸려있다. 그 의미는 보는 사람이 각자 깨달아야 한다는 부연설명이다.

김상용 시인(1902~1951)의 대표적인 전원시 '남으로 창을 내겠소'의 마지막 구절 "왜 사냐 건 웃지요" 가 연상된다. 자연속에서 흙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며 갖는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단열 고려 벽 두텁게 하고 천장 3중 구조
손님용 사랑채 너와지붕에 구들방 갖춰
트로트 가수 류기진씨 홍보대사 맡기도

고흥이 고향인 류씨는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에 죽마고우이자 트로트 가수인 류기진씨의 홍보대사를 자발적으로 맡고 있기도 하다. 류씨 부부 집에 이르면 본채보다도 왼편 별채가 먼저 눈에 띈다. 2004년 여름 본채에 이어 너와 지붕에 구들장을 갖춘 손님용 사랑채를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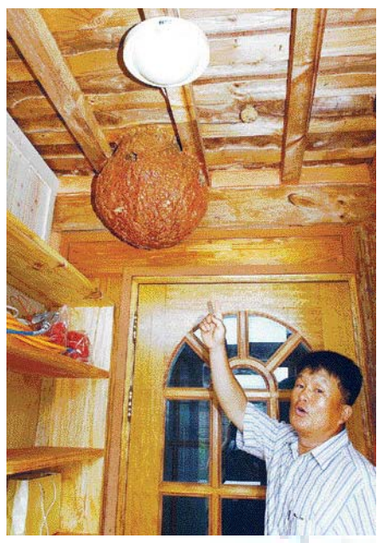
보기에 좁은 듯 싶지만 구들장으로 아랫목·웃목을 난방하기 적합한 12㎡(3.5평) 크기이다. 장작불을 지핀 이곳에서 하룻밤 잠을 잔 사람들은 한결같이 '몸이 개운하다', '코가 뻥 뚫렸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류씨는 "웰빙의 백미는 구들방"이라며 " 주거공간은 인간과 환경에 맞게 '생태 건축'개념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당에 있는 작은 웅덩이에는 백련과 홍련을 심었다. 또 고추, 토마토, 가지, 피망 등이 조금씩 심어져 있고 지게와 항아리들을 이용해 멋을 부렸다. 시간을 쪼개 부부가 같이 하는 금성산성 산행도 전원생활의 즐거움이기도 하다.

류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리걸음을 하듯 쪼그려 앉아 잡초들을 뽑는데 그 자체로 운동이 되고, 잡초라 하지만 민들레와 쑥은 반찬이 되기도 한다. 전원생활을 하려면 주택의 크고 작음보다 우선적으로 부지런해야 한다"며 활짝 웃었다.

류씨 부부는 앞으로 물이 흐르는 계곡에서 펜션운영과 전통식품을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문의(011-633-7488)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현관 천장에 매달린 말벌집. 지금은 비어있다.

류동옥·신영숙 씨 부부는 2004년 황토집을 지은 후 생활하며 난방문제 등 불편사항을 하나둘씩 개선해 나갔다. 웰빙의 백미는 '구들방'이라고 강조한다.

■ 주변 가볼만한 곳

담양읍내에서 순창방향으로 이어지는 국도 24호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길은 우리나라에서 첫 손에 꼽히는 아름다운 길이다.

또 담양 리조트에서 담양호를 끼고 추월산을 지나 가마골로 이어지는 도로는 호젓한 드라이브 코스이다. 관방제림과 죽림원 대숲도 빠뜨릴 수 없다.

차량으로 이동하며 물과 산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거나, 가볍게 금성산이나 추월산 산행에 나서도 좋다. 산행 후 온천욕을 즐기는 호사를 누릴 수 있기도 하다.

메타세쿼이아 길
송학 민속체험랜드
가족 나들이 좋아

산허리에 절묘하게 자리 잡은 금성산성은 물론 담양호 밑에 자리한 '송학 민속체험랜드'는 가족단위 나들이에 좋다.

이곳은 국내 최초의 대규모 민간 민속체험박물관으로 민속품과 희귀품 1만여점이 3천300여㎡ 전시관에 전시돼 있다.

담양 용면 가마골은 영산강 시원인 용소를 품고 있는 곳이다. 용추봉(583m)에서 발원된 영산강 물줄기는 담양읍을 지나 광주~나주~무안 등지를 거쳐 목포앞바다까지 111.5km에 걸쳐 영산강 하구둑을 통해 바다로 흘러든다.

가마골에서 순천 강천산으로 가거나 추령을 거쳐 내장산으로 넘어가며 추령 장승촌과 전북 산림박물관을 둘러볼 수도 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